

선거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경상남도 김해시갑	
후보자명	민홍철	기호		소속정당명	민주통합당
공약번호: 1	공약 제목 : 정책공약				
<p>넉넉한 경제 김해-대기업과 협력업체, 생산자와 소비자, 제조업과 유통업... 제 살 깎기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다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p> <p>편안한 복지 김해-‘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나누는 복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꿈과 힘을 키워주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p> <p>반듯한 교육 김해- 상처는 묻어두면 덧납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부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바꾸겠습니다.</p> <p>쾌적한 환경 김해- 공장은 공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환경 기반시설 확충과 도심 공장 재배치사업으로 공해 없는 기업도시, 쾌적한 주거도시 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p> <p>수준 높은 문화 김해- 철의 왕국에서 농업 선진지로, 농공병진의 젊은 도시로 변모한 김해. 과거·현재·미래가 조화된 문화도시 김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p>					
공약번호: 2	공약 제목 : 대동 첨단산업단지 차질 없는 조성				
<p>대동면 월촌리 일원 3,275,000㎡에 조성되는 대동첨단산업단지 건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p> <p>1단계 163만 7500㎡는 2014년 말, 163만 7500㎡는 2015년 말 완공 계획으로 이 사업은 산업시설용지가 159만 1600㎡로 가장 많고 주거용지 32만 8200㎡, 상업시설 7만 3300㎡, 지원시설 6만 1600㎡, 공공시설 120만 50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지분율에 변수가 발생해 일정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초 협의된 지분율은 김해시 21%, 현대건설컨소시엄 79%(현대건설 25% 극동건설 24% 한국산업은행 15% 한국정책금융공사 15%)였는데, 한국산업은행이 지난해 민영화되면서 공공지분 확보요건(51%)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문입니다.</p> <p>결국 산업은행 지분을 인수할 민간투자자를 찾기 위해 공공투자자 모집공고를 내고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강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동김해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p>					

공약번호: 3	공약 제목 : 안동공단 재개발
<p>안동공단은 김해 최초로 조성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주변지역이 주택단지로 도시화하면서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저해 등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p> <p>17대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이전공약의 대상이 돼 왔지만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공약남발이 기대심리를 자극해 지가 인상만 부추기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으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안동공단을 연차적으로 재개발해 R&D단지과 김해컨벤션센터를 조성(2015~)하겠습니다. 관내 대학, 김해산업단지내 의생명센터 등과 연계한 R&D단지는 지역경제의 업종첨단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김해공항과 신항, 주변의 부산, 창원 등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국제회의장, 비즈니스센터, 문화공간 등을 결합한 김해컨벤션센터를 함께 건립해 주변의 재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p>	
공약번호: 4	공약 제목 : 일자리는 늘리고 복지는 높이고
<p>1.청년 일자리 늘리기</p> <p>청년실업이 심각한데 기업체는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마찰적 실업’이 그 요인입니다. 산·학·연 연계를 강화해서 학교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학과를 조정하고 ‘맞춤형 인력’을 배출하도록 조정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 인력 수요를 사전에 조사·예측·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p> <p>특성화고교 졸업자들의 대체복무를 확대하고 대학 진학시 현장 근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특성화 거점대학’을 운영해 ‘선취업 후 진학’ 방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p> <p>2.일하는 여성, 건강한 자녀</p> <p>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취업장애의 요인 가운데 자녀양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43~44%에 달합니다. 보육서비스 확대는 ‘복지’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 타 분야의 정부부담을 줄이는 데도 필요합니다. 공립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30%까지 늘리겠습니다.</p> <p>3.김해는 중소기업도시, 다문화 도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김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다문화센터’를 건립해 다양한 이주문화와 한국문화가 교류 융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p>	
공약번호: 5	공약 제목 : 경전철 적자 해결

과거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밀어붙인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이 ‘돈 먹는 불가사리’로 전락해 김해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액이 매년 최저 350억에서 많게는 7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승객수가 하루 3만여 명에 불과한데도 수요예측 과정에서 무려 17만6천 명으로 부풀려진 내막과, 그런 수치가 여과 없이 승인된 배경부터 밝혀내 엉터리 민자사업의 재발을 막겠습니다.

또, 현재 김해시가 검토 중인 상사중재나 소송을 통해서 MRG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정부도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앙재정에서 MRG 금액 중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만들겠습니다.